

GLOBAL RESEARCH  
Kiwoom Next Week Trend



| 2026년 2월 6일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리서치팀

2월 1주차

# 주요 트렌드 이벤트



## ◆ 금주 트렌드 ◆

**美:** 금주 미 증시는 원자재/암호화폐 급락과 엔트ropic 발 소프트웨어 산업 구조적 위협, 고용 쇼크까지 겹치면서 변동성 크게 확대. 하방을 지지해줄 것으로 기대됐던 AMD, 구글, 아마존 등 주요 테크 기업들의 어닝 이벤트도 오히려 과도하게 높아진 시 투자 비용이 부담으로 작용하며 기술주 조정에 동조

**中:** 금주 중화권 증시는 글로벌 투자심리 악화로 인해 주 초반 크게 조정 받은 이후 박스권 흐름 지속. 업종별로는 춘절 연휴를 앞두고 소비 기대감으로 인해 음식료, 미용, 등 강세. 반면 글로벌 AI 우려로 인해 통신, 전자, 컴퓨터 등은 조정

**ETF:** ISM 제조업 PMI 컨센 상회, 섀다운 종료 기대에도 불구하고, AI 소프트웨어 경쟁 격화, 하드웨어 비용 및 빅테크 CAPEX 부담 확대, AMD 가이던스 실망 등으로 기술주 투자심리 위축. 주 후반 고용지표 부진도 가상자산·원자재·주식 추가 하락을 견인. 경기민감주·가치주로 자금 일부 이동하는 추세 속 머스크의 태양광 업체 시찰 소식으로 중국 태양광 기업 중심 강세

## ◆ 차주 트렌드 ◆

**美:** 차주 미 증시는 어닝 시즌 지속되는 가운데 섀다운 여파로 지연 발표될 1월 고용보고서, CPI, 소매판매, 연준 위원들의 발언 예정되어 있는 만큼, 기존 증시 상승을 뒷받침했던 유동성 확대와 AI 투자 확대 정당화에 대한 강세 여건이 유지될 수 있을지 여부에 주목할 필요

**中:** 차주 중화권 증시는 주 초반 업종/테마 중심으로 점진적인 투자심리 회복 전망. 주 후반에는 설 장기 연휴를 앞두고 관망 심리가 짙어질 것으로 전망

**ETF:** 차주 증시는 통화정책 불확실성, 원자재 시장 변동성, AI 소프트웨어 섹터 조정에 따른 약세 흐름 지속 예상. 섀다운으로 지연되었던 비농업 고용지표, CPI 등 경제지표 발표 예정돼 있어 이벤트 리스크 경계 필요. 한편, SpaceX 지수 편입 기대감과 머스크의 '우주 태양광' 장기 비전이 부각되며, 관련 테마 ETF에 대한 관심은 차주에도 유효할 것으로 판단

## 미국 트렌드

- ◆ **예상보다 가파른 빅테크 업체들의 CAPEX 지출 상향 추세:** 마이크로소프트, 메타에 이어 알파벳과 아마존도 FY2026 CAPEX 지출 가이던스 대폭 상향.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내 마진 압박 우려 속 주가는 하락. 실제로 알파벳의 경우, AI 투자에 따른 감가상각 및 데이터센터 운용 비용 확대에 대한 부담을 컨퍼런스 콜에서 직접 언급. 다만 결국 대규모 자금 투자는 반도체, 인프라 수요로 이어진다는 관점에서 해당 업종 지속적인 관심 필요
- ◆ **암호화폐 급락이 주도한 위험자산 투자심리 위축:** 비트코인은 심리적 지지선인 7만 달러 하회. 추가 하락 이어질 경우, 타 자산에 불안감 계속해서 전이될 가능성 있음. 연준의 금리 동결 기조와 유동성 축소 우려가 부담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차주 연준 위원들의 발언과 고용 보고서에 대한 민감도 높아질 전망

## 중국 트렌드

- ◆ **일론 머스크 팀, 우주 태양광 협력을 위해 다수 중국 태양광 기업 방문:** 주로 태양광 장비 기업과 접촉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중국 현지 언론은 이중접합 장비 기업과 주문 협력을 체결했다고 보도
- ◆ **중국 플랫폼 과세 강화 가능성 부각으로 인해 대형 플랫폼 기업 투자심리 악화:** 게임 등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인상 가능성이 제기. 다만 당매체인 신화통신 등은 관계자 인터뷰 등을 통해 가능성이 낮다고 보도
- ◆ **바이두, 주주환원 정책 발표:** 2028년 12월 31일까지 최대 50억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 시장 상황에 따라 규모 조정 가능성 존재. 또한 정기 및 특별 배당 가능성도 언급

## ETF 트렌드

- ◆ AI 소프트웨어 경쟁 격화, 하드웨어·CAPEX 부담 확대에 따른 기술주 조정 속, 고용지표 부진까지 맞물리며 위험선호 심리 급격히 위축. 한편, 머스크의 태양광 업체 시찰 소식으로 관련 테마로는 자금 유입 강화되는 모습
- ◆ 통화정책 불확실성, 원자재 변동성, AI 소프트웨어 조정에 따른 약세 흐름은 단기간 지속될 수 있음. 차주 고용지표·CPI 발표를 앞두고 이벤트 리스크 경계와 더불어 우주 태양광 등 일부 테마 중심의 선별적 대응이 유효할 것으로 판단
- ◆ 전력 인프라 확보가 전 산업의 핵심 과제로 부상한 가운데, 우주 태양광 모멘텀과 ITC 일몰 전 수요, 글로벌 확장 가능성 등 태양광 산업의 구조적 성장 흐름에 노출될 수 있는 ETF 'TAN' 소개

일	월	화	수	목	금	토
8	9	10	11	12	13	14
<p><b>일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월 CB 고용동향지수</li> <li> 2월 Sentix 투자자 신뢰지수</li> <li> 12월 임금소득</li> <li>12월 경상수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월 NFIB 소기업 낙관지수</li> <li>12월 소매판매</li> <li>12월 수출입물가지수</li> <li>11월 기업재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월 비농업고용지수</li> <li>1월 실업률</li> <li>1월 급여</li> <li>1월 클리브랜드 CPI</li> <li> 창립 국경일 휴장</li> <li> 1월 CPI</li> <li> 1월 실업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월 기준주택판매</li> <li> 12월 경상수지</li> <li> 1월 기업물가지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월 CPI</li> <li>1월 실질임금</li> <li> 4분기 경제성장률</li> <li>12월 무역수지</li> <li> 1월 도매물가지수</li> <li> 1월 주택가격</li> <li> 1월 수출입물가지수</li> </ul>		
<p><b>실적</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아플로 글로벌 매니지먼트</b></li> <li>백턴 디킨슨</li> <li><b>코어위브</b></li> <li>온 세미컨덕터</li> <li>아이콤 테크놀로지</li> <li><b>엠코 테크놀로지 퍼미</b></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아스트라제네카</b></li> <li><b>코카콜라</b></li> <li><b>길리어드 사이언스</b></li> <li>S&amp;P 글로벌</li> <li>웰타워</li> <li>CVS 헬스</li> <li>듀크 에너지</li> <li><b>스포티파이</b></li> <li><b>로빈후드</b></li> <li><b>클라우드플레어</b></li> <li><b>포드 모터</b></li> <li>데이터도그</li> <li>파이버브</li> <li><b>아스테라 랩스</b></li> <li>인테그리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시스코 시스템즈</b></li> <li>맥도날드</li> <li>서던 코퍼</li> <li><b>쇼피파이</b></li> <li><b>애플린</b></li> <li>에퀴닉스</li> <li>넷이즈 ADR</li> <li><b>버티브 홀딩스</b></li> <li>모토로라 솔루션스</li> <li>크라프트 하인즈</li> <li>로열티 파머</li> <li>휴마나</li> <li>글로벌 파운드리스</li> <li>알버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b></li> <li><b>아리스타 네트워크</b></li> <li>유니레버 ADR</li> <li><b>버텍스 파마슈티컬</b></li> <li>브룩필드</li> <li>바클레이즈</li> <li><b>하우멧</b></li> <li><b>에어로스페이스</b></li> <li><b>에어비엔비</b></li> <li>아메리칸 일렉트릭 파워</li> <li>혼다 모터스 ADR</li> <li><b>코인베이스 글로벌</b></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엔브리지</b></li> <li><b>카메코</b></li> <li><b>모더나</b></li> <li>마그나 인터내셔널</li> <li>트릴로지 메탈스</li> <li>아메리칸 배터리</li> <li>테크놀로지</li> </ul>		

# 알파벳 A(GOOG): CAPEX 투자 확대 정당화 가능한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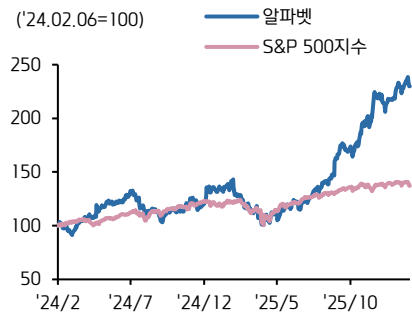
현재주가 (2/5) USD 331.25

## Stock Data

산업분류	통신서비스
세부업종	인터넷 미디어 & 서비스
거래소	NASDAQ
상대지수	SPX
벤치마크 현재주가	6,798.40
시가총액(mln)	4,020,542.1
유통주식수(mln)	5,818.0
52주 최고	349.00
52주 최저	140.53
일평균 거래량	35,943,1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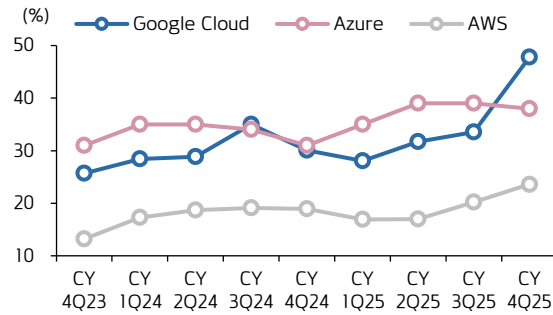
## Performance & Price Trend

주가수익률 (%)	YTD	1M	6M	1Y
절대	6.4	5.2	71.1	74.1
S&P 500	-0.7	-2.1	7.1	1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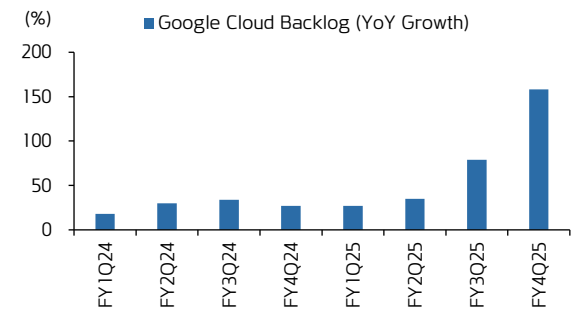
- ▶ **[투자포인트 1]** AI 기반 혁신에 힘입어 FY4Q25 역대 최대 분기 매출 달성한 데 이어 FY25 연간 매출이 사상 처음으로 4천억달러를 돌파. 제미니AI 앱 월간 활성 사용자 수는 7.5억명(FY3Q25 6.5억명)을 초과했으며, 고객 사용 API 토큰 처리량이 분당 100억개로 전분기(FY3Q25 70억개) 대비 크게 증가하는 등 AI 관련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참여 속도가 더욱 가팔라진 모습. 클라우드 부문 매출(YoY +48%, QoQ +17%)과 백로그(2,400억달러, YoY +158%, QoQ +55%), 영업이익률(30.1%, YoY +12.6%p, QoQ +6.4%p)도 강한 성장세 보이면서 AI 투자에 대한 수익화를 증명. 반면 영업이익은 컨센서스를 하회했는데 21억달러 규모의 웨이모 관련 비용의 영향. 이는 최근 투자 유치와 관련하여 기업 가치 상승에 따른 주식 기반 보상 비용으로 이를 제외할 경우, 영업이익과 영업이익률 모두 오히려 컨센서스 상회하는 수치
- ▶ **[투자포인트 2]** 기대치 상회하는 역대급 실적에도 불구하고 상방이 제한된 흐름. FY26 CAPEX 가이드نس 1,750~1,850억달러로 컨센서스(1,280억달러) 큰 폭으로 상회하는 수치였을 뿐 아니라 연중 투자 규모가 점차 확대될 것이라는 경영진의 언급 때문. 과잉 투자 우려가 재차 자극될 수 있다는 점은 간과해서는 안되나, 이를 상쇄할 만큼 성장의 가속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음. 애플 인텔리전스 제미니AI 탑재, AI 쇼핑 에이전트 상용화도 아직 실적 미반영 상태

### 클라우드 3사 YoY 성장률 추이



자료: GOOGL, 키움증권 리서치

### 구글 클라우드 백로그 성장률 추이



자료: GOOGL, 키움증권 리서치

## Company Earnings & Valuation

(백만 USD)	FY24	FY25	FY26E	FY27E
매출액	350,018	402,836	460,775	522,990
영업이익	112,390	129,039	156,473	193,486
영업이익률	32.1	32.0	34.0	37.0
순이익	100,118	132,170	135,240	157,756
EPS(USD)	8.04	10.81	11.79	14.00
PER(배)	23.9	33.9	28.3	23.8
PBR(배)	7.1	9.2	7.8	6.3
ROE(%)	32.9	35.7	33.4	29.9
배당수익률(%)	0.2	0.2	0.2	0.2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 주: 2025-02-05 컨센서스 기준, GAAP 기준

# NAURA (002371.CH): 중국 반도체 국산화의 선봉장

현재주가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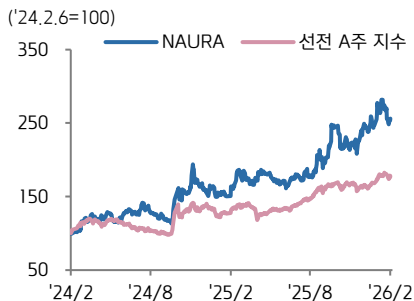
CNY 470.12

## Stock Data

산업분류	기술 하드웨어 & 반도체
세부업종	반도체 장비
거래소	Shenzhen
상대지수	SZASHR
벤치마크 현재주가	2,773.5
시가총액(mln)	344,854.5
유통주식수(mln)	724.1
52주 최고	534.00
52주 최저	277.87
일평균 거래량	8,899,750

## Performance & Price Tre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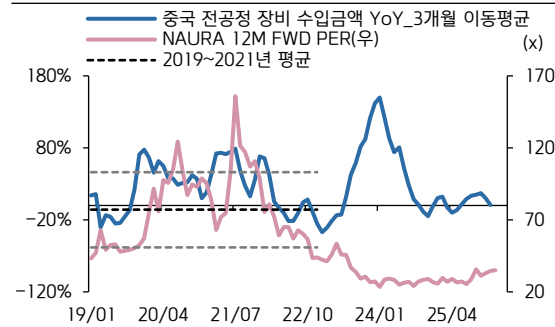
주가수익률 (%)	YTD	1M	6M	1Y
절대	2.4	-0.9	43.1	67.9
SZASHR Index	4.7	2.7	20.0	38.1



▶ **중국 반도체 산업의 투자 가시성 제고로 인해 장비 기업 수혜 부각:** 2026년 중국 파운드리 기업의 투자는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며, 그중 선단공정 및 장비 업그레이드 투자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 이에 더해 2026년부터는 중국 메모리 기업의 증설이 본격화될 전망. 일시적인 투자 변동성은 존재할 수 있으나, CXMT/YMTC 모두 올해 상장을 준비 중이며, 이는 향후 2년 동안 지속적인 투자를 보장할 것으로 예상. 선단공정 및 메모리 중심의 투자 확대는 NAURA와 같은 기술력을 보유한 반도체 장비 기업을 중심으로 수혜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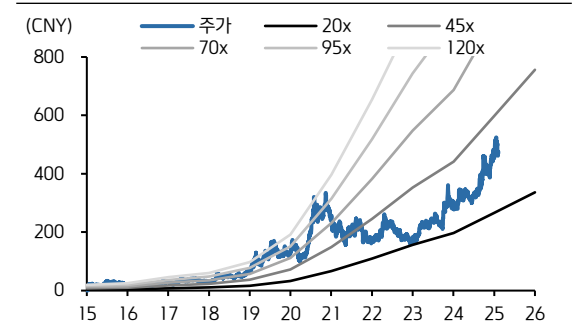
▶ **상반기 CXMT 상장/YMTC 증설 모멘텀 기대,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전망:** 중국 반도체 장비 업종은 투자 확대 국면에서 밸류에이션이 리레이팅 되는 모습을 보임. 반도체 증설 여부를 가능할 수 있는 지표인 전공정 장비 수입 증가율 기준 2019~2021년 투자 사이클 기간 중국 장비 업종의 밸류에이션은 뚜렷하게 상승. 최근 CXMT/YMTC 및 선단공정 투자 확대가 가시화되고 있으며, 정부의 국산화 기조와 선두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기반으로 증설 모멘텀 부각 기대. 현재 NAURA 주가는 12M FWD PER 34 배로 2019~2021년 투자 사이클 평균(77 배) 대비 밸류에이션 부담은 크지 않은 상황. CXMT 상장 및 YMTC 증설을 앞두고 상반기 긍정적인 추가 흐름을 예상

## 중국 반도체 장비 수입금액 및 NAURA PER



자료: 해관총서,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

## NAURA 12M FWD PER 밴드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

## Company Earnings & Valuation

(백만 CNY)	FY23	FY24	FY25E	FY26E
매출액	22,079	29,838	39,266	49,933
영업이익	4,428	6,583	7,625	10,557
OPM(%)	20.1	22.1	19.4	21.1
순이익	3,899	5,621	7,016	9,493
EPS(CNY)	5.5	7.8	9.8	13.3
PER(배)	33.4	37.0	48.5	35.8
PBR(배)	5.3	6.7	8.9	7.3
ROE(%)	17.7	20.3	19.3	21.3
배당수익률(%)	0.2	0.2	N/A	N/A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 주: 2026-2-5 컨센서스 기준

# Invesco Solar ETF (TAN): 태양을 잡아라

현재주가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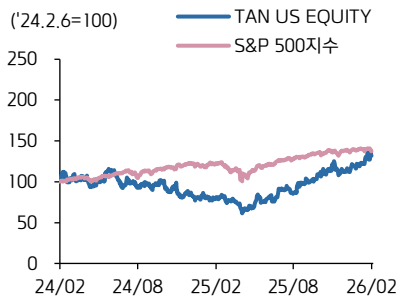
USD 55.83

## Stock Data

자산군 분류	주식
세부전략	태양광
거래소	NYSE Arca
상대지수	SPX
벤치마크 현재주가	6969.01
순자산총액(백만 달러)	7,715.5
유통주식수(mln)	81.9
52주 최고	99.99
52주 최저	30.77
일평균 거래량	3,539,404.0

## Performance & Price Trend

주가수익률 (%)	YTD	1M	6M	1Y
절대	13.7	8.4	54.8	62.9
S&P 500	-0.7	-2.1	7.1	1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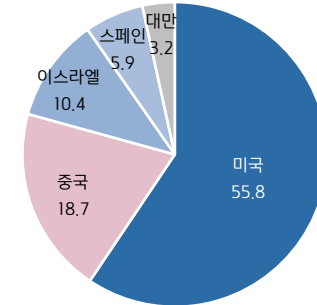
- ◆ **개요:** 'TAN'은 'MAC Global Solar Energy Index'를 추종하는 글로벌 태양광 테마 ETF. 지수는 태양광 발전 장비 제조, 원자재·부품 공급, 발전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 태양광 에너지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사업을 영위하는 글로벌 기업들로 구성되며, 미국 및 ADR·GDR 모두에 투자 가능
- ◆ **투자포인트 1:** 전력 수요가 구조적으로 증가하는 국면에 진입하면서, 태양광을 포함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중장기 수요 기반은 견고해질 전망. 특히 2028년 ITC 일몰을 앞둔 수요 선반영 효과로 단기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2026~2027년 태양광 설치 수요의 견조한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 보유 비중 1위인 넥스트파워의 중동·북아프리카(MENA) 시장 확대 등 태양광 산업의 글로벌 확장 모멘텀도 유효
- ◆ **투자포인트 2:** 일론머스크 측의 중국 태양광 기업 접촉 소식으로 우주 태양광 테마가 부각되며, 중국 본토 A주를 중심으로 관련 종목에 대한 투자 심리 개선. 더불어 이중집합(HJT) 및 페로브스카이트 등 차세대 고효율 태양전지 기술에 대한 기대가 확산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태양광 산업 내 차세대 기술에 대한 관심을 확대시키며 리레이팅의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

## 'TAN' Top 10 Holdings 비중

티커	종목명	비중(%)
NXT US	Nextpower	6.16
ENPH US	Enphase Energy	5.45
FSLR US	First Solar	5.38
RUN US	Sunrun	5.17
ENLT US	Enlight Renewable Energy	4.88
3800 HK	GCL Technology Holdings	4.81
SEDG US	SolarEdge Technologies	4.77
HASI US	HA Sustainable Infrastructure Capital	4.56
968 HK	Xinyi Solar	4.41
DORL IT	Doral Group Renewable Energy Resources	4.26

자료: Invesco, 키움증권 리서치, 주) 2026-02-04 기준

## 'TAN' 국가별 비중



자료: ETF Check, 키움증권 리서치, 주) 2026-02-04 기준

## Company Earnings & Valuation

(백만 달러)	FY24	FY25	FY26E	FY27E
매출액	167.2	150.4	165.2	197.9
EBIT	-3.7	-15.7	3.1	14.8
EBIT 이익률	-2.2	-10.4	1.9	7.5
순이익	-7.5	-12.5	10.1	13.0
PER(배)	16.8	-	60.1	22.5
PBR(배)	1.1	1.8	1.6	1.5
ROE(%)	-4.9	-9.2	1.0	6.6
배당수익률(%)	1.4	0.7	0.6	0.8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 주) 2026-02-05 컨센서스 기준

GLOBAL RESEARCH  
Kiwoom Next Week Trend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리서치팀

- ◆ Global ETF 김진영 jykim@kiwoom.com
- ◆ China Strategy 박주영 jyp1ark@kiwoom.com
- ◆ US Strategy 김승혁 ocean93@kiwoom.com
- ◆ US Equity 박기현 kihyun.park@kiwoom.com
- ◆ US Equity 조민주 mj3346@kiwoom.com
- ◆ RA 조호준 hojun.cho@kiwoom.com
- ◆ RA 한유진 yujin.han@kiwoom.com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